



비룡소의 그림동화 245

## 마녀 위니의 크리스마스 대소동

밸러리 토머스 글 | 코키 폴 그림 | 노은정 옮김  
24쪽 | 양장 변형판 218 x 284mm | 값 10,500원 | 4세부터  
ISBN 978-89-491-1266-4 (74800) / 978-89-491-1000-4 (세트)  
2016년 5월 31일 (주)비룡소 펴냄

### 5백만 부 이상 팔린 세계적 베스트셀러!

#### 「마녀 위니」 시리즈의 신간

### 마녀 위니와 산타가 벌이는 아슬아슬 크리스마스 대소동!

유티와 유머 있는 그림으로 전 세계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작가 코키 폴의 신작 『마녀 위니의 크리스마스 대소동』이 (주)비룡소에서 출간되었다. 세계적 베스트셀러 「마녀 위니」 시리즈는 1987년 『마녀 위니』가 어린이들이 직접 심사에 참여하는 ‘영국 어린이 도서상(Children’s Book Award)’을 받은 이래 계속 출간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30여 개국에서 500만 부 이상 팔렸다. 부스스한 머리와 풀린 눈, 매부리코 등 장난기 가득하고 익살스러운 모습의 마녀 위니와 새까만 고양이 윌버가 펼치는 흥미진진한 마법의 세계에 아이들은 열광한다. 무슨 소원이든 들어 주는 요술 지팡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아이들의 심리를 코믹하고 엉뚱하면서도 따뜻한 상상력으로 풀어내 신나는 판타지의 세계로 초대하기 때문이다. 「마녀 위니」 시리즈의 신간 『마녀 위니의 크리스마스 대소동』에는 마녀 위니와 고양이 윌버, 산타의 크리스마스 선물 배달大作전이 펼쳐진다. 크리스마스를 코앞에 둔 위니와 윌버는 파티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다. 그런데 이게 웬 일? 크리스마스 전날 밤, 산타가 위니네 집 굴뚝에 끼어 버리고 만 것이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빨리 나눠 주어야 하는 산타는 위니와 윌버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위니와 윌버, 산타가 벌이는 아슬아슬 크리스마스 대소동!

#### 위니와 고양이 윌버가 꾸미는 신나는 크리스마스 파티!

크리스마스를 코앞에 둔 마녀 위니와 고양이 윌버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다. 달콤한 케이크와 과자도 구워야 하고, 꼬마전구로 장식도 해야 하고, 또 세상에서 가장 큰 크리스마스 트리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준비를 마친 위니는 마지막으로 산타 할아버지에게 소원을 담은 편지를 쓴다. “제게 주실 선물은 그냥 깜짝 놀랄 기쁜 일이면 돼요. 사랑을 담아 위니 올림.” 이토록 소탈하고 천진난만한 소원이러니! 크리스마스 전날 밤, 위니와 윌버는 산타가 찾아올 거라는 부푼 꿈에 잠 못 이룬다. 하지만

장식 달린 사슴과 화려한 썰매는 온데간데없고 위니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거실 굴뚝에 끼어 버둥거리는 산타 할아버지였다!

### 산타 할아버지와 함께 하는 크리스마스 선물 배달大作전!

위니는 마법으로 산타를 굴뚝에서 빼내 주고, 산타는 위니와 윌버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지구의 아이들에게 함께 나눠 주러 가지 않겠냐고 제안한다. 호기심 가득한 위니와 윌버는 당연히 산타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곧이어 산타의 썰매는 위니와 윌버를 태우고 하얀 눈으로 뒤덮인 마을을 넘어 사막을 지나 얼음산 위를 날아간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눠 주는 데 익숙지 않은 위니와 윌버는 실수를 연발하고, 나눠 줘야 할 크리스마스 선물은 아직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위니와 윌버, 산타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 나갈 수 있을까?

###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반짝반짝 살아 있는 코키 폴의 그림

「마녀 위니」 시리즈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위트와 유머가 넘치고 섬세한 디테일이 가득한 코키 폴의 그림이다. 그중에서도 이번 신간 『마녀 위니의 크리스마스 대소동』은 지금까지 출간된 「마녀 위니」 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그림을 뽐낸다. 반짝반짝 빛나는 조명이 위니의 집을 수놓고, 그림 곳곳에는 아기자기한 크리스마스 장식이 가득하다. 한 페이지를 가득 채운 오색 빛깔 크리스마스 트리도 볼 만하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배달하며 벌어지는 우스꽝스러운 장면들에선 코키 폴 특유의 익살스러운 유머가 느껴지면서도, 결정적인 순간 위니의 요술 지팡이가 빛을 발하는 장면은 웅장한 분위기를 내뿜어 보는 이를 압도한다. 무엇보다 전 세계 다양한 외모와 표정을 지닌 어린이들을 뽐내며 그려 놓은 장면은 코키 폴의 어린이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게 한다.

### 작가 소개

**그린이 코키 폴** | 1951년 짐바브웨에서 태어났다. 「마녀 위니」 시리즈를 비롯한 수많은 어린이책과 시집에 그림을 그린 인기 작가다. 자신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초상화가'일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어린이들을 만나는 걸 좋아한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부인과 함께 살며, 남아프리카 공화국식 바비큐인 '브라이'를 꾸준히 만들어 먹는다.

**글쓴이 벨러리 토머스** | 1987년 「마녀 위니」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그 후로 위니와 함께 온갖 모험을 했다. 요술 빛자루와 하늘을 나는 양탄자도 타 보고, 아기 용에게 엄마를 찾아 주기도 하고, 슈퍼 호박을 키우고, 바닷속과 우주에도 다녀왔다. 비록 진짜 요술 빛자루는 없지만 세계 여러 나라를 꽤 많이 여행했으며, 지금은 호주에 살고 있다.

**옮긴이 노은정** |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린이 책을 우리말로 옮기고 있다. 『마녀 위니의 공룡 소동』, 『용감한 해적 마녀 위니』, 『마녀 위니와 심술쟁이 로봇』 등 온 식구의 손가락 발가락 개수를 다 합치고도 남을 만큼 많은 책들을 번역했다.